



# 병아리 수급 불균형 심화로 가격 등락폭 클듯...

◇ 취재 / 김동진기자

## 1. 종계·부화업의 발전

국내에 처음 본격적으로 원종계가 도입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전쟁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1952년 외국원조기관(ECA)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단관 백색레그흔종과 겹용종인 뉴햄프셔종의 종란 21만개, 종계 497수가 국내에 도입되어 국내의 양계산업의 발판을 다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현재 종계의 경우는 육용원종계 62,000수, 산란원종계 5,700수 정도가 매년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비약을 하고 있으며,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이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거에는 종란으로의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세의 부담이 커 종란수입은 거의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산란계 농장들이 규모화, 단지화되면서 사육수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부화장의 경기도 1989년 이후 2년여 동안 호황을 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불황기간 보다는 호황기간이 길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고 한번 불황이 찾아오면 최소 6개월 이상을 지속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 볼 수 있다.

## 2. 산란 종계·부화업의 현실

지난달 전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양계장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설상가상으로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양계농장들의 경영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다.

지난 한해 동안 산란종계·부화업계는 병아리 평균가격이 542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3년 432원을 기록했던 이후로 최악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초 병아리 가격이 600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대를 갖게 했으나 계속되는 계란가격 하락으로 인한 입추열기 감소로 병아리의 실제 거래 가격이 300원까지 하락하는 등 최악

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10~11월에는 생산비 선을 넘어 756원, 741원으로 숨통이 트이는가 했으나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400~500원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1년여간 계속된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종계·부화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종계장은 현재 종계입식을 중단하는 등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IMF 이후 병아리 생산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신규 부화장이 가세를 하였고, 병아리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입추가 줄지 않아 1999년 중반기부터 근 1년여간 계란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99년도에는 산란종계 입식이 63만수를 웃돌아 산란계는 물론 종계업의 불황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도의 병아리 판매수도 1999년 못지 않게 많은 숫자가 입식된 관계로 금년도의 채란업도 결코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종계입식 수수가 486,500수로 1999년도에 비해 24%가 줄어든 것이 다소 위안을 주고 있다.

표1. 과거 10년간 산란종계 생산 및 병아리 가격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원종계 수입현황 (D리인 기준)	5,580	6,100	6,500	3,500	4,730	4750	5,300	5,100	5,000	5,700
종계입식현황 (수)	594,394	672,730	595,300	608,885	429,520	550,600	587,220	555,000	635,452	486,500
병아리 판매수 (천수)	25,103	28,135	31,653	27,318	29,626	32,743	39,322	35,275	35,595	35,697
병아리 평균가격 (원)	669	614	432	595	600	765	616	691	781	542
평균난가, 특란 (원)	579	625	527	652	783	768	863	979	907	730

### 3. 산란종계 사육 및 부화업계 현황

국내 산란계 종계장 수는 원종계장 1개, 종계장 28개로 대부분 부화장들이 직영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종계장은 위탁사육으로 관리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종계업자는 종계를 판매한 농장과 종란 납품계약을 맺고 종계사육만하게 된다. 이때 종계 공급 농장으로부터 사료회사와 약품업체를 알선받는다. 2~3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으며, 생산성도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산란계와 거의 비슷한 평균 283개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PS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요인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병아리 생산성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종계 1수당 평균 65.5 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80수까지도 생산하는 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종계 병아리 생산비는 종계장과 품종에 비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550~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란계 부화장은 총 11개(강남, 경북, 복지, 봉산, 삼미, 성진, 신진, 양지, 태영, 한양,

형제)로 지난해 본회가 각 부화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용계 생산(판매)수수를 보면 약 3천5백6십9만7천수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지난 12월에는 월평균 3백만수 보다 적은 2백8만수로 산란업계의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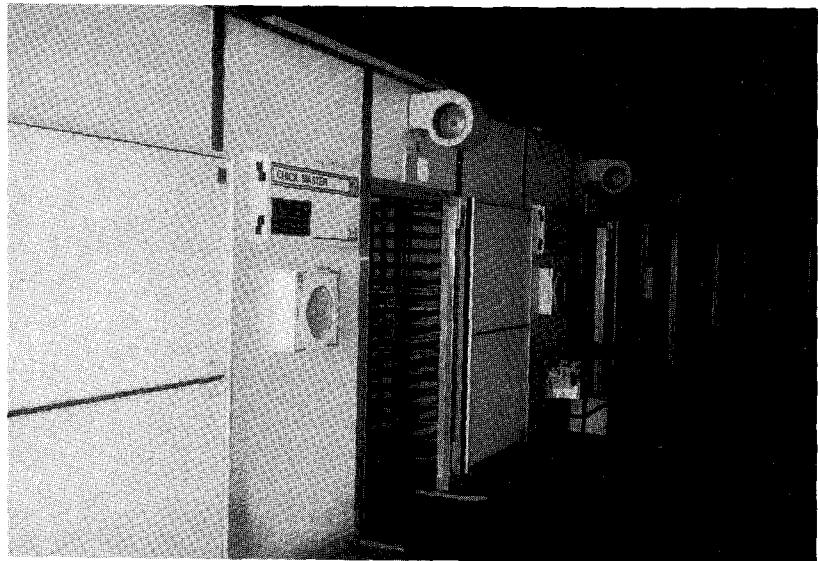
운 현실을 대변해 주었다.

이중 K부화장을 포함한 4개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실용계가 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산란계 품종은 모두 4개품종(Isabrown, Hyline-brown, Loman-brown, Tetra-brown)으로 점유율은 각각 50%, 40%, 8%, 2%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일부지역에서 뉴캣슬병이 확산일로에 있는 등 질병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산란계 업계에서는 환우를 하는 종계장에서 나온 병아리는 불매운동까지 펼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과거보다는 환우경향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환우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질병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란종계의 법적 사육일수는 20개월(약86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 회의를 통해 산란종계의 사육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닭검정기준의 종계관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여건은 종계의 경우에도 일부 농장들이 강제환우를 실시하고 있어 병아리 생산량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특별한 요인(질병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0주령 이후 환우를 실시하거나 경기흐름에 따라 시기를 조절해 오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장기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환우도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병아리 시세가 최악을 기록할 때는 피크기를 겨우 넘긴 종계를 도태시키는 등 농장의 어려움이 예고될 경우 과감한 도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환우를 실시한 계군에서 나온 병아리는 상당부분 가금티푸스 등 질병이 발생되는 예를 호소하고 있어 환우를 삼가하고 건강한 병아리 생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4. 병아리 공급 현황

병아리 판매방식은 크게 계약방식, 일반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 사육시설이 있는 산란계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추업자들이 유통을 통해 입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 판매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산란계농장의 경우 육추장이 있는 농가는 계약을 통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중추를 구입하여 입추를 시키다 보니 유통업자를 통한 중추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주문입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세가 좋을 때는 주문입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부화장으로서는 계약사육조건으로 원가정도의 가격이 농가들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농가들의 입장으로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거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 계약 분양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병아리 생산이 과잉될 경우 중추업자들이 생산되는 병아리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무계획적으로 중추를 육성하는데 있다. 이들은 차후 계란 생산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실하게 관리된 중추로 인해 질병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철저한 계약생산으로 안정적인 채란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계가격 하락으로 노계도태가 원활하지 않아 병아리 입식이 미뤄지는 바람에 지난해 말 종계입식수수가 줄어들고 병아리 생산수



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병아리 가격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란업계의 경우 과거에는 3~4개월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찾아왔지만 IMF 이후 6개월을 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이 한번 불황에 휩싸이면 이를 극보해 나가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저난가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이 노계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

계로 환우에 들어간 숫자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우가 끝난 현재 산란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4월까지 환우계가 도태되는 시점에서 입추가 몰릴 경우 일시적인 병아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식된 산란종계의 경우 과거 수요기를 겨냥해 입식되던 패턴과는 달리 2월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한 종계들이 입식되어 금년도 병아리 수급에 차질을 가져와 병아리 공동화 현상 내지는 과잉으로 이어져 병아리 가격의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개 부화장이 이제는 서로간의 공동 이익과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1998년 10월에 병아리 생산감축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생산 수수 감축을 위한 노력에 가일 충 노력해야 할 것을 기대해 본다. **양계**